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한 구멍에서 나오는 거를 한 구멍에다 도로 놔라

지난 호에 이어서



그림 · 최주현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의식 자체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배인이 돼야 됩니다. 한 생각이면 한마음으로 따라 주는…. 생각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꿈을 잘못 꾸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이지 누가 꿈을 잘못 꿨다고 말했습니까? 그건 여러분의 습성으로 인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더라. 그렇게 꿈을 꾸면 나쁘다더라.' 요런 생각에서 오는 관습입니다.

이성계가 꿈을 안 좋게 꾸었는데도 무학대사가 그렇게 대답을 잘했지 않습니까? 왜냐. 그게 진리니까. 색경이 와르르 깨졌다 하니까 "좋은 소식이, 국민이 전부 다 소리를 높이겠구나. 좋은 꿈이로다." "스님! 꽃이 피었다가 와르르 다 졌습니다." "야! 꽃이 다 졌으니 열매가 맺히겠구나."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말 한마디 대답이. "아휴, 스님! 까마귀가 그냥 까욱까욱하고 울고 가는 거를 또 보았습니다." "아이구, 참 좋겠구나. 가옥가옥이니까 지금 시쳇말로 말해서 청와대에 들어갈 꿈이로구나." (대중 웃음)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런데 스님, 더 들어 보십시오. 우리 집 대문에, 그 들어가는 대문에다 허수아비를 목을 졸라서 딱 매 놓고는 뒤룽뒤룽하는데 그럼 그게 얼마나 흉한 꿈입니까?" 하니까 "그런 말 말게. 만인이 다 우러러보는 꿈일세." 이랬거든요. 안팎이 우러러본다고 했어, 나오며 들어가며. 허, 이렇게 좋은 그 꿈. 꿈이 뭡니까? 여러분이 살아나가는 데에 조금도 남을 해롭게 하지 않는 이익한 생각을 하는 것이 꿈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얘기할까요? 어떤 친구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꿈을 꾸었죠. 예전에도 내가 얘길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스님한테 가서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어저께 밤 꿈에 소쿠리를 하나 얻었습니다." "야, 오늘 초대를 받아서 잘 먹겠구나. 그저 나쁘게는 절대로 생각하지 말아라. 너부터 사람이 돼야 되느니라." 하시고선 대답을 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가만히 옆에서 친구가 들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날 누가 초대를 해서 자기도 따라가서 무척 잘 먹었거든요. '나도 한번 스님한테 그렇게 해야겠다.' 하곤 꿈도 안 꿨는데 며칠 후에 가서 "저도 꿈을 꿨는데 소쿠리를 얻었습니다, 스님." 그러니까 스님이 있다 하는 소리가 "얘! 조심해라. 나가면 몰매를 맞을 꿈이로다." 이랬단 말입니다. 똑같이 소쿠리를 얻었다는데 글쎄, 그렇게 말을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니 누가 저지르고 누가 몰매를 맞게 됐습니까?

그건 왜냐. 꿈도 안 꾸고 스님을 우롱하면서 고렇게 말을 했으니…. 그래 매를 맞고 사흘을 일어나질 못하다가 나흘 되던 날 너무 궁금했습니다. '꿈도 안 꾸고 가서 그랬는데 이럴 수가 있나?' 하고 가서 말을 했죠. "스님, 제가 사실은 꿈도 안 꾸고 스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몰매를 맞게 됐습니까?" 하니까 "이놈아! 네가 생각을 해낸 것도, 간교스럽게 생각해 놓은 것도 꿈이다. 그것도 꿈이지 꿈이 아닐 수가 있느냐. 그러니 너무 간교한, 어처구니없는 꿈을 숭상했기 때문에 네가 해 놓고 네가 맞았느니라." 이러더랍니다. 소쿠리가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문제였죠. 그러니 그 버릇을 그렇게 톡톡히 가르쳐 놓더랍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 빼놓고는 절대로 이 공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부처님께서 49년 설하면서 나오셨을 때는 여러분의 마음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오신 거지 육신의 병을 고쳐 주고 육신의 뭐를 해 주기 위해서 나오신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돈 한 가지만 있다면 모든 걸 사고 모든 걸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얘깁니다. 마음 하나만 고쳐 주면 일체 모든 게 자기 거 아님이 없어요. 그러니 부처님께선 마음 병만 고쳐 주면, 한 가지만 고쳐 주면 다 자유스럽게 살 수 있을 테니까 마음 병을 고쳐 주러 오신 거죠. 그런데 이 사람네들이 아주 그걸 진실하게 믿고 그렇게 한 구멍에다가 놨다가 한 구멍에서 나오는 그 도리를, 우리는 부처님 도량의 그 정신, 손바닥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 이 손바닥 속에서 헤매는 걸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겠다 하고선 정진을 해야 할 텐데 이거는 자기가 자기인 거예요. 자기 아는 범위 내의 그릇이죠.

그래 천둥 번개가 쳤는데 말입니다, 귀머거리가 그거 안 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러면 천둥 번개 잘못이냐 귀머거리 잘못이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못 듣는 귀머거리 잘못이지 천둥 번개 잘못이 아니거든요. 왜냐? 귀머거리 아닌 사람은 천둥 번개가 쳤다고 그러고 귀머거리인 사람은 천둥 번개가 안 쳤다고 그러고 천둥 번개가 없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 부처님께서 그렇게 해명을 해 주셨다 이겁니다. "야! 귀먹은 사람은 천둥 번개를 듣지 못하니 없다고 그럴 것이고 귀 안 먹은 사람은 천둥 번개가 쳤다고 할 것인데 그건 누가 잘못인가?" 그러고 귀머거리더러 물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자기 탓이거든요. 그래서 "제 잘못입니다." 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똑같이는 내가 말 안 합니다만 지금 여러분이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그 용어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설하시다가도 끄트머리에 언제나 '시대가 변천하는 대로 용도에 맞게 방편을 써도 좋고 시대가 바뀌어지는 대로 법을 바꾸는 것은 인간이 바꾸는 거지 다른 데서 바꾸는 게 아니니 시대에 맞춰서 그 계율을 바꾸어서 해도 좋으니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종지가 어떠니 뭐가 어떠니 하고 부처님 말씀을 경전에 쓴 것을 그대로 외워서 그대로 여러분한테 설한다면 이 시대하고는 동떨어진 얘깁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썼어도 용어를 바꾸어서 부처님 말씀의 그 뜻을 전달하는데, 이심전심으로 전달하는데 그게 진짜 가고 옴이 없이 갈 수 있게끔, 가슴에 와닿을 수 있게끔 얘길 해 줘야 전 세계가 부처님 뜻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미국에 갔는데 말입니다, 불교를 마구니 소굴로 알아요. 아이구 참 내, 기가 막혀서. 그래 내가 껄껄 웃었습니다. 껄껄 웃고 "당신네들 하나하나가 불교 아닌 게 없어." 그랬습니다. 어째서 그러냐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바로 불(佛)이야. 그래서 이 우주 삼라대천세계의 돌아가는 것도 불바퀴, 당신네들이 말하는 블랙홀이야. 불성이, 그 불바퀴가 우리한테도 있어. 작은 거면 작은 것대로 큰 거면 큰 것대로 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은 말 하는 것도 교(敎)다 이거야. 풀 한 포기도 불교 아닌 게 없는데 당신네들은 불교를 어디 국한돼 있는 걸로 알아? 그리고 마구니로 알아? 당신네들이 미신 짓을 하면 귀신이 있고 미신이 있는 거고 당신네들이 미신 짓을 안 하면 미신은 없어.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